

1.1 체언 - 명사, 대명사, 수사

(1) 명사: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**예** 사람, 꽃, 나무

- ① 자립 명사 -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,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들
- ② 의존 명사 - 꾸밈을 받아야지만 사용될 수 있는 명사

관형사형 어미(**예**-은, -는, -을, -던) 뒤의 '수, 것, 만큼, 따름, 뿐, 대로, 지, 채' 등
 수관형사(**예** 한, 두, 세, 네) 뒤의 **개, 그루, 마리, 명** 등 단위를 나타내는 말

예 나는 할**수** 있다. / 영미가 가져온**것**은 책이다. / 난 할**만큼** 했다.
 나는 그저 기쁠**따름**이다. / 그는 말만 그렇게 할**뿐** 실천하지 않는다.
 내가 한**대로** 따라 해 봐라 / 그가 떠난**지** 10년이 넘었다. / 옷을 입은**채**로 물에 들어가다.
 사과 두**개** / 나무 두**그루** / 토끼 세**마리** / 친구 다섯**명**

적용 문제 1

2016학년도(2015년) 9월 평가원

밑줄 친 부분이 <보기>의 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<보 기>

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, ㉠**자립 명사**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. 예를 들어 '사람'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.

- 의존 명사 :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.
- 자립 명사 :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.
-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: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.

-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.
- ② 앉은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.
-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.
- ④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순가락 겨우 뜨셨다.
-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냇다 도망쳤다.

더 알아보기 I 의존 명사의 종류

의존 명사 뒤에 어떤 조사가 결합되는지에 따라 보편성, 주어성, 서술어성, 부사어성 의존 명사로 나눌 수 있다. 보편성 의존 명사는 어떤 격조사와도 잘 어울리고, 주어성 의존 명사는 주격 조사 '이/가'와, 서술어성 의존 명사는 서술격 조사 '이다'와, 부사어성 의존 명사는 부사격 조사와 결합한다. 물론 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.

- 보편성 의존 명사 **예** 나에게 먹을 **것**이 없다. 나는 먹을 **것**을 좋아한다. 이것은 먹을 **것**이다.
- 주어성 의존 명사 **예** 어쩔 **수**(가) 없다. 설마 그럴 **리**(가) 있겠니?
- 서술어성 의존 명사 **예** 최선을 다할 **따름**이다. 최선을 다했을 **뿐**이다.
- 부사어성 의존 명사 **예** 나는 그가 시키는 **대로** 했다. 나도 할 **만큼** 했다. 나는 그가 공부를 잘하는 **줄**로만 알았다.

(2) 대명사: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

① 인칭 대명사

- ㉠ 1인칭: 나, 저, 우리, 저희
- ㉡ 2인칭: 너, 너희, 자네, 당신, 그대, 귀하
- ㉢ 3인칭 [이이, 그이, 저이, 이분, 저분, 그분 ……
재귀 대명사: 저, 자기, **당신**, 저희

재귀 대명사란? 한 문장 안에서 나온 체언을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받을 때 사용하는 대명사
예 철수는 **그**가 천재라고 생각한다.(대명사) vs 철수는 **자기**가 천재라고 생각한다.(재귀 대명사)
예 그는 **저**도 모르게 울음을 터트렸다.(그=저) / 아이들은 어려서 **저희**밖에 모른다.(아이들=저희)
예 이 책은 아버님 **당신**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것이다.(아버님=당신) ☆☆☆

② 지시 대명사: 사물이나 공간을 가리키는 대명사

	화자에게 가까움	청자에게 가까움	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멀
사물	이, 이것	그, 그것	저, 저것
공간	여기, 이쪽	거기, 그쪽	저기, 저쪽

③ 미지칭 대명사 / 부정칭 대명사 - 인칭, 사물에 모두 사용

- ㉠ 미지칭 대명사: 대상은 정해져 있으나 무엇인지 **모를 때** 사용
예 누구세요? 날씨가 **언제**야? 장소가 **어디**야? 그게 **무엇**이니?
- ㉡ 부정칭 대명사: **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or 굳이 밝히지 않는 것**
예 누구나 환영입니다. **언제**든지 물어봐. **무엇**이든 물어보세요.
예 그는 **뒀**에 흘린 듯이 걸어갔다. 오늘은 **어디** 갈 데가 있어.

더 알아보기 I 미지칭과 부정칭의 구별법

'누구, 언제, 어디, 무엇' 등 형태가 똑같이 구별이 쉽지 않다. 그러나 쉽게 말하면 부정칭은 ①정해지지 않은 것 (**예**누구나 환영입니다), ②굳이 밝히지 않는 경우(**예**나 지금 **누구** 좀 만나러 가야 해.)이고, 그 외에 몰라서 묻는 질문은 대부분 미지칭이다(**예**아까 만난 사람은 **누구**야?).

적용 문제 2

2007학년도(2006년) 6월 평가원

<보기>의 ㉠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?

————— <보 기> —————

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‘나, 우리’와 같은 1인칭, ‘너, 자네, 그대’와 같은 2인칭, ‘이분, 그분, 이이, 그이’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. ㉠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, 2인칭,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.

가. 당신은 누구십니까? (2인칭)
 나.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. (3인칭)

- ① 가: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.
 나: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.
- ② 가: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?
 나: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.
- ③ 가: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.
 나: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.
- ④ 가: 너희를 누가 불렀니?
 나: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.
- ⑤ 가: 우리 먼저 갈게요.
 나: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.

(3) 수사: 수량이나 순서(=차례)를 나타내는 말

① 양수사(수량): 하나, 둘, 셋, 넷(고유어계) / 일, 이, 삼, 사(한자어계)

예 사람 다섯이 걸어온다.

② 서수사(순서):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(고유어계) / 제일, 제이, 제삼, 제사(한자어계)

예 첫째가 진리이고, 둘째가 자유이다.

cf. ‘첫째’가 ‘형제자매에서 제일 순위인 사람’을 뜻할 때에는 명사이다.

(4) 체언의 공통점: 조사와 결합할 수 있음 ☆☆☆

예 책상이 넓다. - 명사

예 내가 밥을 먹는다. - 대명사

예 저기 사람 다섯이 있다. - 수사

1.2 용언 - 동사, 형용사

(1) 동사: 동작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말

- ┌ 자동사: 주어의 움직임만을 나타내는 동사(목적어 無) **예** 나는 학교에 **간다**.
- └ 타동사: 주어의 움직임이 목적어에도 영향을 주는 동사(목적어 有) **예** 밥을 **먹다**.

(2) 형용사: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

더 알아보기 |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법 **필수개념**

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,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‘-니다(는다)’를 붙여보는 것이다. 동사는 결합이 가능하고, 형용사는 결합이 불가능하다.

예 달리다 - 달린다(O) / 먹다 - 먹는다(O) / 높다 - 높는다(X) / 예쁘다 - 예쁘다(X)

형태가 같은 동사와 형용사들도 이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.

예 아이가 시간이 갈수록 빨리 **크다/큰다(O)**. ∴ 동사, 그는 덩치가 **크다/큰다(X)**. ∴ 형용사

예 새벽이 벌써 **밝다/밝는다(O)**. ∴ 동사, 햇빛이 **밝다/밝는다(X)**. ∴ 형용사

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예외가 있다. 예를 들어 ‘잘생기다’는 ‘잘생긴다’가 불가능하지만 품사가 동사이다. 왜 동사인지는 ‘5. 시제와 상 5.5. ☺더 알아보기’를 참고하자.

더 알아보기 | ‘있다’와 ‘없다’의 품사 **필수암기**

결론부터 말하면 ‘있다’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있고, ‘없다’는 항상 형용사이다. ‘있다’가 [머물다]의 의미일 때, 혹은 보조용언일 때에는 동사, [소유], [소재(所在)]의 의미일 때는 형용사이다.

예 여기에 움직이지 말고 **있어라**. 그는 내일 집에 **있는다고** 했다. - [머물다] ∴ 동사

아침에 일찍 일어나 깨어 **있었다**. 그는 의자에 앉아 **있다**. - 보조용언 ∴ 동사

나는 책이 10권 **있다**. 나에게 선택권이 **있다**. - [소유] ∴ 형용사

컵이 책상에 **있다**. 방 안에 사람이 **있다**. - [소재] ∴ 형용사

그런데, 형용사 ‘있다’와 ‘없다’는 동사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품사는 형용사임을 알아두자.

예 생각이 **있는/없는** 사람 → 관형사형 어미 ‘-는’은 동사에만 결합되지만, 예외적으로 형용사 ‘있다/없다’에도 결합된다.

(3) 본용언과 보조용언

용언이 두 개 나열되었을 때는 ‘**본용언+본용언**’이거나 ‘**본용언+보조용언**’의 구성이다. 보조용언은 본용언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.

① 본용언 + 본용언: 두 용언의 의미가 모두 살아있다.

예 종이를 휴지통에 **찢어 버린다**.

그는 학교에 밥을 **먹고 간다**.

문을 **열고 나가라**.

돈을 한꺼번에 말고 **나눠서 주어라**.

01. 형태론

② 본용언 + 보조용언: 보조용언은 본용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, 본용언 없이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.

- 예 내가 아끼는 옷을 동생이 **찢어 버렸다**.
- 밥을 다 **먹어 간다**.
- 그는 붓을 들고 글을 **써 나가기** 시작했다.
- 나는 동생을 **업어 주었다**.



더 알아보기 |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별하기 **필수암기**

용언이 두 개 나열될 때, 앞의 용언은 항상 본용언이지만, 뒤의 용언은 본용언이나 보조용언이다. 이때 뒤의 용언이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, 바로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는지 없는지이다.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으면 본용언, 그렇지 않으면 보조용언이다. 또는 제1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로도 알 수 있다.

- 예 그는 학교에 밥을 먹고 **간다**. ⇒ 그는 밥을 먹다. 그는 학교에 간다. 'go'의 의미가 있음 ∴ '간다'는 본용언
- 예 종이를 휴지통에 찢어 **버린다**. ⇒ 종이를 찢는다. 종이를 휴지통에 버린다. 'dump'의 의미가 있음 ∴ '버린다'는 본용언
- 예 나는 동생을 업어 **주었다**. ⇒ 나는 동생을 업었다. 'give'의 의미가 없음 ∴ '주었다'는 보조용언
- 예 실수로 돈을 찢어 **버렸다**. ⇒ 실수로 돈을 찢었다. 'dump'의 의미가 없음 ∴ '버렸다'는 보조용언

적용 문제-3

2017학년도(2016년) 6월 평가원 변형

<보기>의 ㉠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?

<보 기>

악기가 ㉠**내는** 소리의 식별
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㉡**내는** 형식

㉠은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. 그러나 ㉡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'보조 용언' 기능을 한다.

- ① 그 일을 다 해 **버리니** 속이 시원하다.
-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**주었다**.
-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**되랴**.
- ④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**오겠다고** 큰소리를 쳤다.
- 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**보고** 시작하자.

1. 품사 한 줄 N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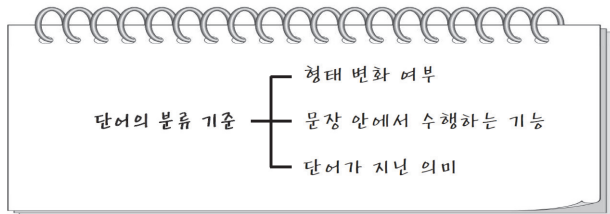
정답및해설 p.21

1. 체언에는 _____, _____, _____가 있다.
2. 명사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 _____, _____로 나뉜다.
3. 의존명사는 반드시 _____의 꾸밈을 받아야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명사이다.
4. '영미가 가져 온 것은 책이다.'에서 의존 명사는? _____
5. '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.'에서 의존 명사는? _____
6. '당신'은 _____인칭 대명사로도, _____인칭 대명사로도 쓰인다.
7. '그 일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게.'에서 주어는 _____인칭 대명사이다.
8. '너희들은 무엇을 좋아하니?'에서 주어는 _____인칭 대명사이다.
9. 재귀대명사는 _____인칭 대명사에 속한다.
- ☆ 10. '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부자리를 개신다.'에서 '당신'은 _____인칭 대명사이다.
11. '이, 그, 저' 중에서 화자와 청자에게서 모두 먼 대명사는? _____
- ☆ 12.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모르는 것은 [미지칭/부정칭]이고,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[미지칭/부정칭]이다.
13. 수사는 _____와 _____로 나뉘며, _____계와 _____계가 존재한다.
- ☆ 14. 수사와 수관형사는 조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. 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면 _____이고, 불가능하면 _____이다.
15.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면 _____이고,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면 _____이다.
16. 문장에서 목적어라고 하면, 목적격 조사 _____(이)/가 붙은 것을 의미한다.
17. 동사는 현재 시제 '-(느)ㄴ다'가 결합할 수 [있고/없고], 형용사는 결합할 수 [있다/없다].
18. _____은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없으며 본래 용언의 의미에서 벗어나 본용언의 뜻을 더해준다.
19. 보조 용언 중, 부정을 나타내는 _____, _____는 앞 용언의 품사에 따라 품사가 결정된다.
20. 동사나 형용사가 어미를 바꾸면서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_____(이)라고 하고, 그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_____(이)이라고 한다.
21. '예쁘고, 높아서, 달려서'에서 각각의 어간은?
- ☆☆ 22.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㉠_____라고 한다. ㉠_____는 크게 단어의 끝에 오는 ㉡_____와 단어의 끝에 오지 않는 ㉢_____로 나눌 수 있다. ㉡_____는 또 문장을 끝내는 ㉣_____, 문장을 연결하는 ㉤_____, 성질을 바꿔주는 ㉥_____로 나눌 수 있다. ㉣_____의 의미는 대부분 ㉦_____와(과) ㉧_____표현을 나타낸다.
- ☆☆ 23. [용언의 명사형/파생 명사]은(는) 관형어의 수식이 불가능하나, [용언의 명사형/파생 명사]은(는) 관형어의 수식이 가능하다.
- ☆☆ 24. [용언의 명사형/파생 명사]은(는) 부사의 수식이 가능하나, [용언의 명사형/파생 명사]은(는) 부사의 수식이 불가능하다.

01. 형태론

- 25. 어간의 형태 변화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[규칙/불규칙] 활용이다. 그런데 어간 형태에 변화가 있더라도 보편적인 _____으로 설명될 수 있으면 [규칙/불규칙] 활용에 포함시킨다.
- 26. ‘흐르다, 푸르다, 따르다’ 중 ‘르’ 불규칙인 것은?
- 27. ‘르’ 불규칙은 어간의 _____이(가) _____로 교체된다.
- 28. 관형사는 _____관형사, _____관형사, _____관형사로 나눌 수 있다.
- 29.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은 모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, 가장 큰 차이점은 관형사는 형태가 변할 수 [있고/없고], 용언의 관형사형은 형태가 변할 수 [있다는/없다는] 것이다.
- 30. _____는 주로 뒤에 오는 단어(용언)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말로, 용언이나 관형사, 다른 부사,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.
- 31. 부사는 한 단어를 꾸며주는 _____부사와, 문장을 꾸며주는 _____부사로 나눌 수 있다.
- ☆ 32. ‘그리고, 그러나, 또한, 및’처럼 접속의 기능을 하는 말들은 [성분/문장] 부사에 속한다.
- 33. 부사는 일반적으로 _____을(를) 수식하지 않지만, ‘바로, 겨우’ 등은 이를 수식할 수 있다.
- 34. 조사는 일반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나 서술격 조사 ‘_____’만은 활용한다.
- 35. 조사는 _____, _____, _____로 나뉜다.
- 36. 보격 조사가 붙는 보어는 ‘_____’ 앞에 있는 성분이다.
- 37. 품사 분류는 크게 ‘_____’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.
- 38. 품사는 형태에 따라 _____, _____(으)로 분류한다.
- 39. 품사는 기능에 따라 _____, _____, _____, _____로 분류한다.
- 40. 품사는 의미에 따라 _____, _____, _____, _____, _____, _____, _____로 분류한다.
- 41. ‘철수는 자기 집에 도착했다’의 ‘자기’는 재귀 대명사이다. [O/X]
- 42. ‘밖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린다.’의 ‘누가’는 [미지칭/부정칭] 대명사이다.
- 43. ‘그쪽이 먼저 시비를 거셨잖아요.’에서 ‘그쪽’은 _____인칭 대명사이다.
- 44. ‘음식을 먹어 대다’에서 ‘대다’는 [본용언/보조용언]이다.
- 45. ‘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꼭 음식을 끓여 먹도록 하자.’의 ‘먹도록’은 [본용언/보조용언]이다.
- 46. ‘얼음이 얼은 걸 보니 밖이 엄청 추운가 보다’의 ‘보다’는 [본용언/보조용언]이다.
- 47. ‘이 책도 한번 읽어 보거라.’의 ‘보거라’는 [본용언/보조용언]이다.
- 48. ‘영미야 저것 좀 가져 와라.’의 ‘와라’는 [본용언/보조용언]이다.
- 49. ‘정신이 없어서 책을 빼 먹고 가져왔다.’의 ‘먹고’는 [본용언/보조용언]이다.
- 50. ‘그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 버렸다.’에서 ‘버렸다’는 [본용언/보조용언]이다.
- 51. ‘나도 그거 한번 마셔 볼래.’에서 ‘볼래’는 [본용언/보조용언]이다.
- 52. ‘어제 복도에서 똥 사람은 누구니?’에서 ‘똥’의 ‘-ㄴ’은 [어말/선어말] 어미이고, [전성/연결/종결] 어미이다.
- 53. ‘할머니 모시고 영화 보러 가자.’의 ‘고’는 [어말/선어말] 어미이고, [전성/연결/종결] 어미이다.
- 54. ‘문을 닫고 들어와라.’에서 ‘닫고’는 [규칙/불규칙] 활용을 한다.
- 55. ‘돕다’는 [어간/어미/어간&어미]이(가)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.
- 56. ‘묻다(問)’는 [어간/어미/어간&어미]이(가)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.
- 57. ‘빠르다’는 [어간/어미/어간&어미]이(가)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.
- 58. ‘푸르다’는 [어간/어미/어간&어미]이(가)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.
- 59. ‘하다’는 [어간/어미/어간&어미]이(가)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.
- 60. ‘빨갳다’는 [어간/어미/어간&어미]이(가)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.

1.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. 이를 바탕으로 <보기>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2017년 11월 고1]



— <보 기> —
 ○ 우리도 두 팔을 넓게 벌려 원 하나를 이루었다.
 ○ 동생이 나무로 된 탁자에 그린 꽃만 희미하다.

- ① ‘도’와 ‘만’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.
- ② ‘이루었다’와 ‘그린’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.
- ③ ‘두’와 ‘하나’는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.
- ④ ‘나무’와 ‘꽃’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.
- ⑤ ‘넓게’와 ‘희미하다’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.

2. <보기>에 나오는 ‘부사’의 특성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2009년 9월 고2]

— <보 기> —
 몇 시간이 흐른 뒤 도착한 곳은 ㉠겨운 열 평 남짓한 간이역이었다. 역사(驛舍) ㉡바로 옆 노점 아낙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은아를 맞았다. ‘㉢설마 민우가 이곳에 있지는 않겠지.’ 은아는 코스모스 활짝 핀 거리를 지나 언덕을 오르며 생각한다. ㉣부디 민우가 어디에 살고 있든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. 오랫동안 ㉤못 만났지만, 은아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는 민우였다.

- ① ㉠은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도 오는군.
- ② ㉡은 체언을 꾸며 주어 그 의미를 제한하고 있군.
- ③ ㉢은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쓰이는군.
- ④ ㉣은 문장에서 놓이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군.
- ⑤ ㉤은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기능을 하는군.

3. <보기>를 바탕으로 목적격 조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2010년 11월 고2]

— <보 기> —
 목적어는 타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으로 ‘체언+목적격 조사(을/를)’의 형태로 성립된다.
 예) 나는 독서를 즐긴다. / 그는 책을 사랑한다.
 ㄱ. 그는 누굴 더 사랑할까
 ㄴ. 나는 사과를 좋아해. / 나는 사과를 좋아해.
 ㄷ. 나는 너만을 좋아해. / 나는 너를 좋아해.
 ㄹ. 나는 영수와 만났다. / 나는 영수를 만났다.
 ㅁ. 선생님께서 책을 열 권을 주셨다.

- ① ㄱ : 목적격 조사가 ‘ㄹ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구나.
- ② ㄴ : 목적격 조사의 자리에 보조사 ‘는’이 쓰이기도 하는구나.
- ③ ㄷ : 체언과 목적격 조사 사이에 다른 보조사 ‘만’이 올 수도 있구나.
- ④ ㄹ : 부사격 조사 ‘와’를 목적격 조사로 바꾸어 쓰기도 하는구나.
- ⑤ ㅁ : 한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가 두 번 나오더라도 이를 생략해서는 안 되겠구나.

4. <보기>를 참고할 때, 밑줄 친 단어가 보조용언으로 사용된 것은? [2011년 6월 고2]

— <보 기> —
 ○ 본용언은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고,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.
 예) 사람들이 모두 가 버렸다. : ‘버렸다’는 ‘가다’의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뜻을 보충함.

- ① 영화는 밥을 먼저 먹고 보자.
- ② 철수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.
- ③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왔다.
- ④ 힘이 드니 잠시 여기 있다 가자.
- ⑤ 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다.

5. <보기>의 자료를 바탕으로 ‘용언’에 대해 탐구한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2013년 11월 고2]

————— <보 기> —————

ㄱ. 날씨가 덥다.
 ㄴ. 날씨가 더워 온다. / 날씨가 더워온다.
 ㄷ. 철수가 밥을 먹고 갔다. / *철수가 밥을 먹고갔다.
 ㄹ. 영희가 종이배를 접어 띄웠다.
 ⇒ 영희가 종이배를 접었다. + 영희가 종이배를 띄웠다.

*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.

- ① ㄱ, ㄴ으로 볼 때, 한 용언이 홀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용언과 어울려 쓰이기도 하는군.
- ② ㄴ의 경우, 뒤의 용언이 앞의 용언의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군.
- ③ ㄷ으로 볼 때, 문장 안에서 두 용언이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띄어 써야 하는군.
- ④ ㄴ과 ㄷ은 모두 ㄹ처럼 의미가 성립하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겠군.
- ⑤ ㄴ~ㄹ로 볼 때, 두 용언이 어울려 쓰일 경우 ‘-아/어’, ‘-고’와 같은 어미로 연결되는군.

6. <보기>의 밑줄 친 단어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? [2014년 6월 고2]

————— <보 기> —————

형용사와 관형사를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‘서술하는 기능’이 있다. 예를 들어, ‘동물원에는 큰 사자가 있다.’에서 ‘큰’은 ‘사자가 크다’처럼 주어인 ‘사자가’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므로 형용사이다. 그러나 관형사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.

ㄱ.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.
 ㄴ.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.
 ㄷ. 수리를 하고 나니 새 가구가 되었다.
 ㄹ.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.
 ㄹ. 그의 빠른 일처리가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하였다.

형용사	관형사
① ㄱ, ㄷ	ㄴ, ㄹ, ㄹ
② ㄱ, ㄹ	ㄴ, ㄷ, ㄹ
③ ㄴ, ㄹ	ㄱ, ㄷ, ㄹ
④ ㄱ, ㄷ, ㄹ	ㄴ, ㄹ
⑤ ㄴ, ㄷ, ㄹ	ㄱ, ㄹ

7. <보기>의 ㉠~㉣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2014년 9월 고2]

————— <보 기> —————

[선생님의 설명]
 보조사 ‘도’는 쓰임새와 의미가 다양해요. 체언뿐만 아니라 연결어미나 부사, 조사와도 결합할 수 있어요. 또 다양한 문장 성분 자리에 사용되어 ‘더함’이나 ‘동격’의 의미를 덧붙입니다. ‘놀라움의 감정’을 강조하기도 하고, ‘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’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요. 다음 수업 자료를 보면서 ‘도’의 다양한 쓰임새와 의미를 알아볼까요?

[수업 자료]
 우리 가족들은 오랜만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다. 나는 사촌 동생들과 저녁때까지 신나게 뛰어 놀고 내가 좋아하는 ㉠축구도 함께 했다. 주변이 점점 어두워져서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. ㉡평소에도 잘 먹지 않던 나물반찬이 많아 밥만 먹고 있었더니 할머니께서는 ㉢반찬도 먹이라며 무라셨다. 저녁을 대충 먹고 사촌 동생들과 함께 고구마를 ㉣깎아도 먹고 구워도 먹었다. 배가 부르자 피곤이 밀려와서 씻기는커녕 옷을 ㉤갈아입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.

- ① ㉠: 보조사 ‘도’는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군.
- ② ㉡: 보조사 ‘도’는 다른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군.
- ③ ㉢: 보조사 ‘도’는 놀라움의 감정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군.
- ④ ㉣: 보조사 ‘도’를 통해 두 가지 행위가 동등하게 일어났을 수 있군.
- ⑤ ㉤: 보조사 ‘도’를 통해 다른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군.

8. 다음은 '사전 활용하기'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.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[2014년 11월 고2]

이1 **의존명사**
 '사람'의 뜻을 나타내는 말.

이2
 [1] **대명사**
 1)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.
 ¶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.

[2] **관형사**
 1)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.
 ¶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.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한다.

이3
 [1] **수사**
 1) 일에 일을 더한 수, 아라비아 숫자로는 '2', 로마 숫자는 'II'로 쓴다.

[2] **관형사** (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)
 1) 그 수량이 돌임을 나타내는 말.

- ① '저 모자를 쓴 이가 누구지?'의 '이'는 사람을 뜻하므로 '이1'의 용례가 되는군.
- ②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뜻풀이가 있으므로 '이2'는 다의어에 해당하는군.
- ③ '이2 [1] 1)'의 용례와 '이2 [2] 1)'의 용례를 통해 '이2'는 조사의 결합 가능 여부에 따라 품사를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.
- ④ '이 킬로미터를 걸어라.'에서 '이'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므로 '이3 [1] 1)'의 용례로 들 수 있군.
- ⑤ '이1', '이2', '이3'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군.

9. <보기>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[2015년 6월 고2]

— <보 기> —

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바뀌어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'규칙 활용'이라고 하고,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것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'불규칙 활용'이라 한다. 불규칙 활용은 ㉠어간이 바뀌는 경우, ㉡어미가 바뀌는 경우, ㉢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.

- ① '솟다'가 '솟아'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, '낫다'는 '나아'로 활용하므로 ㉠에 해당한다.
- ② '엷다'가 '엷어'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, '엷든다'는 '엷들어'로 활용하므로 ㉠에 해당한다.
- ③ '먹다'가 '먹어'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, '하다'는 '하여'로 활용하므로 ㉡에 해당한다.
- ④ '치르다'가 '치러'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, '흐르다'는 '흘러'로 활용하므로 ㉡에 해당한다.
- ⑤ '수놓다'가 '수놓아'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, '파랗다'는 '파래'로 활용하므로 ㉢에 해당한다.

10. <보기>의 [가]를 바탕으로 [나]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 [2016년 6월 고2]

— <보 기> —

[가] 품사는 단어를 '형태', '기능', '의미'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. ㉠ '형태'에 따라 불변어, 가변어로, ㉡ '기능'에 따라 체언, 용언, 수식언, 관계언, 독립언으로 나뉜다. 그리고 ㉢ '의미'에 따라 명사, 대명사, 수사, 동사, 형용사, 관형사, 부사, 조사, 감탄사로 나뉜다.

[나] 열에 아홉은 매우 착실한 학생이다.

- ① ㉠에 따라 나누면 '착실한'과 '이다'는 가변어이다.
- ② ㉡에 따라 나누면 '열'과 '학생'은 체언이다.
- ③ ㉡에 따라 나누면 '은'과 '이다'는 관계언이다.
- ④ ㉢에 따라 나누면 '아홉'과 '학생'은 같은 품사이다.
- ⑤ ㉢에 따라 나누면 '매우'와 '착실한'은 다른 품사이다.